

“한국불교 세계화, 영문학술지 보급부터”

송석구 회장·김용표 교수, 기자간담회...내년 국제학술대회 계획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불교학 논문들이 영문으로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국내 학자들의 영어 논문이 부족한 실정에서 영번역 등에 지원이 활발해야 하지만 전무합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영문불교학술지 보급조차 이전 힘든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영문불교학술지인 IJBTC(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1집 발간을 맞은 자리에서 영문학술지 보급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송석구 회장(가천의대 명예총장)과 김용표 IJBTC 편집위원(동국대 교수)은 10월 22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석구 회장과 김용표 교수는 2002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창립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IJBTC를 연 2회 발간해 하버드대, 예일대 등 전세계 350여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IJBTC에는 박성배 스토니브룩대 교수,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러대 교수, 카멜 워너 런던대 교수 등 17개국 학자들이 편집인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2012년 창립 10주년을 기해 한국불교를 테마별로 묶어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한국연구재단

IJBTC 21집 발간... 2002년 첫 출간

영문불교학술지 국내 유일

17개국 학자 편집 참여

하버드대 등 세계 350곳 배포

국제학술지 발행협의회에 가입해 국제 저명 학술지임을 인증하는 A&HCI와 SCOPUS 등재도 추진한다.

송석구 회장은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와 학술지는 한국불교학의 영문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현재도 한국불교에 관심 갖는 세계인은 많지만 이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학을 알릴 영문자료는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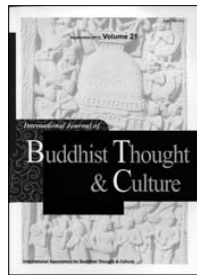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IJBTC가 해외에서 선호받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 활용과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IJBTC에 해외학자들의 기고율이 50%를 넘는다. 국내학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한국불교학계는 규모면에서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일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보였지만 세계와 교류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저조한 상황”이라며 한국불교계가 세계화를 진행하려면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IJBTC 21집 발간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용표 IJBTC편집위원장. 영문불교학술지 관련 불사에 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역설했다.



IJBTC 21집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고민에서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한국학계의 영문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현재도 한국불교에 관심 갖는 세계인은 많지만 이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학을 알릴 영문자료는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송석구 회장은 “영문화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문 감수(Proof Readers)다. 네이티브 수준의 꼼꼼한 감수가 있어야 해외에서 제대로 된 논문으로 읽혀진다”며 “해외 영문 감수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 논문의 경우 영역이 넓어 있다라도 수정·윤문과정이 스티디와 같이 많다. 한국불교학을 세계에 바로 알리려면 영자출판물을 다룰 전문인력 양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구 회장과 김용표 교수는 “IJBTC의 지속적 발행과 육성은 한국불교학 세계화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IJBTC’ 21집에는 △보현행원사상에 대한 고찰(계환 스님) △동아시아에서 화엄종 및 그 이후 불교에 미친 다라니의 역할에 대한 개론적 고찰(이르크 플라센) △중국불교의 화엄학과 밀교의 교섭사 연구(정성준) △리하르트 바그너는 불교도였는가(카렐 워너) △7세기와 8세기의 불교, 국가, 사회-의례와 승원의 역할을 중심으로(판카즈 모한) △수라마니즘의 기원과 미(최경아) △테라와다 루파 개념 전개(김경래) △붓다다사 비구의 죽음을 통해 본 불교에서의 안락사에 대한 분석적 연구(슈프레 칸자니파라) 등 논문 8편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생사관, 자살 방지 효과 지닌다”

불교생명윤리협회 10월 25일 학술세미나에서 대두

최근 이벤트성 자살 퍼포먼스까지 일어 나고 있는 가운데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사회에 불교생명윤리 사상을 널리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핵과 자살, 우리 시대 불교생명윤리의 두 쟁점’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 생명 윤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불교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생명존중사상임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불교국가인 태국의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불교계를 주축으로 한국사회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물론 불교신자가 전 국민의 90% 이상인 태국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한국의 불교인구도 1,000만 명이 넘는 만큼 불자로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가 예로 든 태국 치앙마이 대학의 참롱 디사야바니시(Chamlong Disayavanish)와 프립프라이 디사야바니시(Primprao Disayavanish)는 △자살에 대한 불교적 태도 재확립 △사후 삶에 대한 신념과 확산 △스님들에게 자살과 사후에 관한 이해 제공 △자살자 조기 발견 및 전문가 치료 △자살사단 접근 차단 △알콜과 약물남용 통제 △성병 확산 방지 △스마트폰의 자살관련 보도 자체 △명상수행의 습관화 등을 통해 사회 자살률을 줄이고 있다.

허 교수는 “자살한 영혼들이 구원을 떠돌고 있다는 무속신앙 또한 자살예방교육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 평상심 실천이 곧 영성의 완성”

김호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영성(靈性)과 무아(無我) 세미나에서

기독교계의 영성 개념이 불교의 평상심과 무아 개념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와 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10월 25일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제4회 불교심리포럼에서 선종에서의 평상심과 영성의 관계를 고찰했다.

이날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선종에서 영성의 개념은 조사선의 개념에 잘 드러나 있다”며 “조사선이란 본래성불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까닭에 불성과 평상심과 같은 용어가 그대로 소위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성의 영성적인 기능에 대해 혜능 스님은 불법의 실천이란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선종에서 영성의 실천은 본래성불에 기초한 그 평상심의 실천으로 전개돼왔으며 보살도의 실천으로 귀착됐

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달마는 관음보살의 화현으로,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보살도의 원리는 수행과 깨침의 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 조사선종에서 애초부터 깨침과 수행의 분별을 초월하여 깨침이 없는 수행은 처음부터 설정되지도 않았고, 수행이 없는 깨침은 선 수행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경 분석심리학연구소장도 이날 ‘영성(靈性)과 무아(無我)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각 종교의 영성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이 소장은 “영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거룩한 체험에 기초한 종교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며 “현대의 거룩한 체험은 의식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무의적 정신에서 비롯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계율 전통’ 재점검 해야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제6회 정기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 불교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고찰이 진행됐다.

조계종 ‘보살승가’ 인가 ‘비구승가’ 인가 동국대 겸임교수 마성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의 계율전통 주제발표에서 현재 조계종의 계율전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조계종은 현재 구족계와 보살계를 동시에 받는데서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대승불교권에서 승려들은 출가한 보살 개념으로 자리했기에 한국불교 승려들은 ‘보살승가’의 개념”이라며 “실제 생활에서는 계가 아닌 중현종법과 청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분율>에 의한

구족계는 승려의 신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치부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이 일제강점기 대처식육이 허용되며 크게 흔들렸으며 이후 한국불교에 만연해 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일제시대 당시 계율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1981년 조계종의 단일계단 설치 이후 계율전통의 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몇몇 율사를 제외하고 승려들이 <사분율>의 바라제목자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보살승가’ 인지 ‘비구승가’ 인지를 중현종법에 명시해야 한다. 비구승가라면 계율 쪽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는 무종파·통불교의 특성 살려야
고영섭 교수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제 발표에서 한국불교의 무종파성



마성 스님



고영섭 교수



문우악 박사

과 통불교성이 한국불교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이날 승랑의 ‘합명’과 ‘병관’, 원축의 ‘순성’과 ‘계회’, 원효의 ‘화회’와 ‘보법’ 등 논법과 관법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사상가들은 양극단의 논의과정에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여러 관법을 살펴보면 한국불교사상가들은 해당 명제에 개별성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암리에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고영섭 교수는 이어 “한국불교는 이러한 특성 속에서 회통과 화쟁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발현한 사상을 고집여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동아시아 교류에서 주도적 역할 한국불교가 과거 불교 전래과정에서도 동아시아 불교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 또한 대두됐다.

문우악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원형에 관한 시론’ 주제 발표에서 “신라의 불교 공인은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동서교역로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 졌다”며 “당시 신라불교의 중심이었던 경주는 지역불교 중심지를 넘어 실크로드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 ‘불교의 보편성·특수성’ 세미나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영자)은 11월2일 오전10시 30분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 티베트,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각 지역별 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다뤄진다.

정효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기초강연을 하며 1부에서는 ‘인도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조준호 한국외대 연구교수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정성준 동국대 교수가 ‘티베트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나타난 불교 사적 과정’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गर(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아(시기리아성채)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국의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점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급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라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10 여행자보험 포함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Gravasti):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샬리(Vaishali):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일(犍王奉樂) 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गर(Kushnagar):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계승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